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초등학생 문화 강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토피어리를 만들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가족끼리 가을 답사여행 떠나요”

문화가 살찌는 계절 가을.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이 가을을 맞아 풍성한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관광지 나들이가 부담스러운 가족들과 대인 수확능력시험(13일)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가을 문화강좌를 추천한다. 대부분 수강료가 저렴해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체험형 행사가 많아 우리 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미술관 문화강좌 ‘풍성’ 수능 끝나면 수험생 체험행사도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오는 22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가을 문화유산 답사를 떠난다. ‘정약용, 유배지의 학문과 문화’를 주제로 다산초당, 백련사, 전라병영성지, 하멜전시관, 무위사 등지를 둘러보는 행사이다. 유물전시관 학예사들의 현장 설명 등이 곁들여지며, 다산초당 등지의 빼어난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참가비는 점심 포함 1만원이며, 선착순 35명

는 3천원. 문의 061-374-9202.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어린이 문화센터는 오는 12월28일 까지 겨울학기 문화 강좌 참석자들을 모집한다. 유아, 초등, 중등으로 연령을 나눠 열리는 이번 문화 강좌는 학생들이 수채화 등 미술기초와 공예품, 토피어리(물이끼 이용 식물장식)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다. 유아문화강좌(7세 이하), 초등생문화강좌, 토요 취미프로그램, 토요 과학프로그램, 미술교육 프로그램, 겨울방학 집중실기 강좌 등으로 나눠 참가자들을 모집하며 수강기간은 오는 2008년 1~2월까지이다. 문의 062-510-0144.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7일~12월26일까지 대입 수확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험생을 위한 광주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험생이 고교학, 한국미술사, 도자기, 전통그림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다. 학교 단위 신청이 가능해 대입 일정이 마무리된 수험생들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으로도 권할 만하다. 담당 큐레이터들이 전문 분야를 나눠 현장 설명에 나서고, 문화재 관련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내용도 알차다. 강의는 문화재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문화재 특강은 ▲우리 문화와 세계문화 ▲고고학 특강 ▲한국미술사 특강 ▲도자기 ▲아시아 ▲차마고도 ▲신창동 등으로 구성됐다. 또 체험 프로그램은 ▲개진 그릇 불이기 ▲나전 칠기 타임캡슐 만들기 ▲전통 그림 카드 만들기 ▲공은 옥 목걸이 만들기 ▲연적 만들기 ▲손끝으로 그리는 광주 ▲옛 책 만들기 등으로 이뤄졌다. 각 프로그램별 선착순 70명 모집이며, 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570-7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수근 ‘빨래터’ 논란 서울대로 ‘불똥’

과학 감정 보고서 조사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작품인 고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서울대로 옮겨붙었다. 6일 미술계와 서울대에 따르면 서

울대는 ‘빨래터’에 대한 과학 감정을 의뢰받아 분석해준 기초과학공동기원 정전기속기연구소(소장 이영문)는 오는 22일 참가자들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선사체험 대동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참가자들이 선사시대의 옷을 입고, 석기와 청동기를 직접 만드는 등 고인돌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농경 체험, 신앙 체험, 토기 만들기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선착순 8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

외부에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윤 교수가 지난 7월 과학감정 결과를 발표한 형식과 분석 내용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재판부에 원고 측 준비 서면 자료로 제출된 해당 과학감정 보고서가 내부 결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형식적인 미비점을 안고 있을뿐더러 진위를 판정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기준 작품의 임의적인 선정 등 분석 내용도 과학적으로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연습뉴스

“일상과 가상 ‘결합’이 중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늘 조선대서 ‘스토리텔링’ 세미나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분야별 전략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7일 오후 2시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학술세미나’에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대표적인 장르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모색해 본다.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이병규 아 니코닉스 콘텐츠 기획본부 이사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과 관련, 친숙하고 익숙한 ‘일상’과 신기하고 과격적인 ‘가상’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뽀롱

뽀롱 뽀롱 시리즈’와 ‘뽀까’를 통해 TV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DVD, 캐릭터 상품, 출판, 온라인 게임, 인터넷 콘텐츠, 테마파크,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파생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현재 국내 시장 규모가 6조 원에 달하고 2012년에는 무려 10조 원이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전략도 논의된다.

이재홍(서강대 게임교육원) 교수는 국내 게임 산업의 경우 프로그램(공학)과 그래픽(미술)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나리오 등 콘텐츠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스토리텔링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게임 스토리텔링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 창작과 함께 독자적인 사건과 캐릭터 창작, 배경(세계관) 창작, 아이템·퍼즐·음악 등의 게임요소가 어우러질 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우재 케냐즈 대표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가장 저평가된 장르지만 풍부한 이야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인력풀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영화, 게임, 방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화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세철(조선대 교수), 박경철(조선대 교수), 심재광(디자이너 대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62-350-2448.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청소년 영상제’ 광주서 열린다

(사)매지청소년사회교육원 7~9일 5·18기념문화센터 18편 본선 진출 열띤 경합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영상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제10회 한국청소년영상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7일부터 9일까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사)매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이번 영상제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된 공모작 116편(대학생 부문 31편, 중·고등생 부문 85편)중 18편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인다.

본선진출작 중 우수작품 9편은 8~9일까지 중·고생 부문(19세 미만)과 대학생 부문(25세 미만)으로 나뉘어 각 각 상영되며, 드라마·단편영화·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첫날인 7일 오후 6시에는 ‘재밌는 영화파티를 즐겨보아요’를 주제로 청소년 밴드와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펼쳐진다.

8일과 9일 오후 1시부터는 본선진출작 상영과 청소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며 행사 마지막날인 9일 오후 4시30분에는 폐막식과 함께 마술쇼, 축하공연,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상(상금 200만원)과 광주시장상(상금 100만원) 등을 비롯해 모두 1천100여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들은 KBC광주방송을 통해 상영된다.

이밖에 영상편지쓰기, 캐리커처, 건강검진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김포 분진중학교 영상반 작 단편영화 ‘해바라기’.



박기훈 작 드라마 ‘길에게 길을 묻다’.

매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영상제는 청소년들과 영상을 통해 교감을 나누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영상제가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73-131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서울권 핑키바레나이트 (대인용 롯데백화점 뒤/예약:062-226-9334)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수 관련 광고)